

여호수아(4) 약속의 땅

■ 본문

수 3:1-17

■ 시작 찬송가

73장(통 73장)

■ 헌금 찬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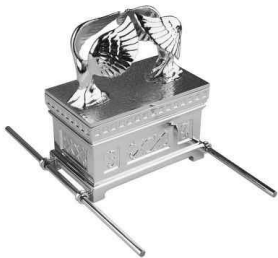
347장(통 382장)

▶ '순종'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2018.02.11. 주일찬양예배)

▶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아론의 싹 난 지팡이, 만 나를 담은 향아리가 들어있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언약궤는 최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하였으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여호수아에 나타난 '땅'의 주제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후반부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땅'은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주는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마침내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았고,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걸음을 옮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머물던 광야에서 발을 떼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으로 완전히 그들의 영역을 옮기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된 요단강은 결코 쉬운 강이 아니었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은 물살이 빠르고 깊었으며 그 폭은 매우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언약궤가 앞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의 강물이 그친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수 3: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언약궤의 덮개는 '시온좌'라고 불렸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즉,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드러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는 땅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수 3:17 여호와 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갔더라

언약궤가 있었으나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던 전투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언약궤를 내세웠음에도 패했습니다. 단순히 언약궤 뒤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겸손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삼상 4:3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 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삼상 4:10-11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루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었드러진 자가 삼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어떠한 일이 쉽거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 건너가야 하는 땅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넌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건너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너가야 하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 출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 시 106:9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건너온 뒤에는 잘 정착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도 애굽에서의 삶을 뒤돌아봤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사람은 건너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건너지 못하고 돌아가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말입니다.

- 출 17:3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 벧후 2:22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쪽 발은 광야에 두고 한쪽 발은 가나안 땅에 디디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합이 자기 족속을 떠나 붉은 줄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세례입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끊어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 롬 6:1-3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은 한번도 건너본 적 없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건너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오늘의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요단강



요단의 시작(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의 물은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로 흘러들어 간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기도 하다. 건기에는 폭 30m, 깊이 1m에 불과하나 우기가 되면 폭이 1.6km, 깊이는 3~4m까지 깊어진다.

▶ 건너감의 은혜

-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히 11:29)
-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음(고전 10:1-2)
- 요단강을 건넌 (수 3:1-17)